

자연의 세계

배움의 後園



임효경 전 완도중 교장

6월로 접어들었다. 날씨는 점점 더워지고, 감기 바이러스가 여기저기 발발해 나이 들고 심신이 약해진 자들을 공격하고 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 새로운 대통령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잘 만들어야 할 텐데 사뭇 걱정이 태산이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 나누다가 결론은 늘 우리나라 정치이다.

어이, 어디 이 나라가 제대로 살아남겠는가?

정말 힘들어 못 살겠네. 코로나 때가 차라리 더 나아.

차라리 자네가 나가서 좀 잘해 보소~

아니, 무슨 소리 하는가?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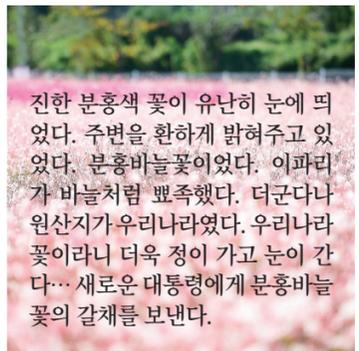
그 진흙탕에 들어가서 치고받고 싸우고 살아남는 사람이 대단한 것이제~

나도 나른해 늘어지고 있다. 정년한 지 아직 일 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나간다. 무등산 숲길은 졸졸졸 흐르는 개울물 소리와 개안한 진한 초록색 옷을 입고 창창하다. 어두운 집에서 나오길 참 잘했다. 나 혼자 걱정한다고 천지가 개벽하겠는가? 연두가 변해 초록이 된 나무들은 뜨거워지는 태양에 반짝반짝 빛으로 답하고 있다. 그 초록빛이 소리를 내고 있었다. 소쩍새도 울고, 꿩도 울고, 가끔 딱따구리가 나무동지 짹는 소리도 난다. 숲길 가 꽃이 다지고 이파리가 무성하니 나무가지 사이 작은 새들이 왔다갔다 분주하다, 짹-짹, 호로-로롱.

숲길은 옛날 옛적부터 나무꾼들이 다니던 좁은 길이다. 그 길을 따라 터벅터벅 산에서 내려와 개천을 따라 걷다 보면 배고픈 다리가 나오고, 그곳을 지나 걷는 길 끄트머리에 남광주시장이 있다. 거기에 내다 팔 장작을 이고 지고 힘들게 다녔을 길을 내가 지금 이렇게 걷는다. 생계를 유지해 주던 삶의 노선이 나에게

힐링의 길이다. 그 노고에 감사하고 그 치열함을 느껴보고자 맨발로 걸어본다. 제법 깊은 숲길을 걸으면 더욱더 발바닥이 차갑다. 그 시절 버터내준 이름 모를 사람들이 지나다니던 길에 신발 하나 벗어보니, 그 신발 두께만큼 그들의 삶에 다가간 듯하다.

더 놀라운 것은 숲의 땅에서 올라온 풀들이다. 이렇게 다양한 풀들이 있었다는 것인가? 겨우내 땅속에 씨앗과 뿌리로



진한 분홍색 꽃이 유난히 눈에 띄었다. 주변을 환하게 밝혀주고 있었다. 분홍바늘꽃이었다. 이파리가 바늘처럼 뾰족했다. 더군다나 원산지가 우리나라였다. 우리나라 꽃이라니 더욱 정이 가고 눈이 간다... 새로운 대통령에게 분홍바늘꽃의 갈채를 보낸다.

만 남야 조용히 숨죽이고 있던 풀들이다. 마침내 초여름 때를 맞이하니, 자기 자리에서 앞다퉈 제 모습을 자랑하고 뽐내며 모두 다 피어있다. 이름 모를 풀들이지만 다 모양이 제각각 매력을 뽐내고 있다. 옛그제 내린 비로 모두 싱싱하게 파릇파릇하다. 동그랗게 반질반질한 이파리, 뾰족하게 뾰은 이파리, 웅기종기 귀엽고 작은 솜털 가득한 이파리 하나 하나 들여다보며 걷는 숲길이 나를 다시 충만하게 한다. 아- 모두 다 귀하고 사랑스러워. 모두 다 독특해. 저기 저 자리엔 저 풀이 딱 맞는 자리야. 모두 다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며 고만고만 어울려 잘 지내니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보기 좋은가.

너희가 우리 인간들보다 낫다. 제 이익 앞에서 인정사정없이 싸우며 서로를 치유할 수 없는 큰 상처를 주고받으며, 어떤 이는 억울해 죽고, 또 어떤 이는 미워 죽는 우리들이 참 부끄럽다. 잘살아 보라고 명문대학교, 특히 서울대학교를 보낼 것이 아니라, 너희를 연구하고, 너희의 마음을 배워야 할 것이야.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좀 가르쳐 주라.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그저 태양의 빛, 바람의 호흡, 목을 적셔 줄 빗줄기와

뿌리를 받쳐 줄 흙이다. 더 큰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그저 자신에게 부여된 것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연 속에서 낫다가 자연 속으로 돌아간다. 역지로 욕심 낼 것도 없고, 역지로 얻어냈다고 또 그만큼 부요해 지지도 않는 것이 인생이다.

나도 바람처럼 왔다가 그들에게 감탄하고, 가끔씩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으로 나의 역할을 한다. 나의 역할은 미약하건만 그들이 주는 선물은 창대하다. 하릴없이 주변을 서성이는 나에게 생생한 현장의 중심을 허락한다. 무심하고 아무렇지 않은 나에게 아가다람쥐가 원크를 해 주었다. 돌 틈에서 쪼르르 내 앞으로 달려 나와 까맣고 작은 눈망울로 날 쳐다보고, 두 다리를 올려 마주 잡은 모습 한번 보여주려고 휘 달려간다. 깜짝 감동한다. 어머니, 숲은 살아있구나. 작은 동물들도 품어주고, 스물스물 기어다니는 온갖 벌레들도 지 모습 그대로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고 있구나. 우리도 그러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 숲을 이뤄 간다. 이름 모를 풀들도, 저 작은 동물도. 그렇다면 나도 나 나름대로 이 세상의 중심이고, 나도 이 세상의 일원이 되어 아름다운 세상을 지켜내는 것이다. 나도 내 역할을 하고 있구나, 자신감을 갖게 한다. 나른함이 생생함으로 바뀐다.

친구들과 걷기를 하는 길가에서 이름 모를 여여쁜 꽃 무더기를 발견했다. 체력 단련 공원 화단가에 황금사철나무 앞에 가지런하게 나란히 피어있는 진한 분홍색 꽃이 유난히 눈에 띄었다. 주변을 환하게 밝혀주고 있었다. 꽃 검색을 해보니, 분홍바늘꽃이었다. 이파리가 바늘처럼 뾰족했다. 더군다나 원산지가 우리나라였다. 아, 우리나라 꽃이라니 더욱 정이 가고 눈이 가서 우리 모두 감탄을 했다.

분홍바늘꽃, 너야말로 우리를 정녕 개안(開眼)하게 하는 대단한 꽃이로구나. 이처럼 너를 발견하고 눈을 크게 뜨는 기쁨이 있는 날, 나는 어께가 펴지고, 그래? 그랬었구나~~!! 깨닫고 자존감 바짝 쟁기게 됐다. 우리 모두 그러한 자연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우리나라 만세, 새로운 대통령에게 분홍바늘꽃의 갈채를 보낸다.

누군가의 생명을 이어주는 영웅들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김동수의 나눔독특

6월 14일 세계헌혈자의 날이다.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고 헌혈자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날이다.

헌혈의 가치를 가장 절절하게 느낄 수 있는 순간은, 바로 수혈이 절실한 환자나 가족들의 이야기 속에 담겨있다.

한 체장암 수술 환자의 자녀는 이렇게 회상한다.

“여러 약품 팩들 사이로 어김없이 혈액 팩이 함께 걸려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피가 있어야 아버지가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에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의 핏줄이 아버지께 이어졌고, 아버지의 핏줄을 이어받은 제가 또 저의 핏줄을 누군가에게 있습니다. 저의 헌혈(핏줄)도 누군가의 생명을 잇고 지탱하는 힘이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분만 후 대량 출혈을 겪었던 산모는 이렇게 말한다.

“누군가의 소중한 헌혈을 통해, 그 누군가는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소중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생명의 위급한 순간의 누군가에게 절대적이지 절박함으로 생명의 연장선이 되어주는 헌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늘도 사랑의 실천을 실행하고 있는 히어로들이 있기에, 저 역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헌혈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수혈자의 사연처럼 절실하다. 하지만 저출산의 영향으로 젊은 층의 헌혈인구는 감소하는 추세다. 반면 고령화로 혈액 수요는 줄지 않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헌혈자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한데, 지금까지의 기념품 제공만으

로는 한계가 있으며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2024년 혈액 사업 인식도 조사를 보면, 국민이 가장 바라는 헌혈자 예우 방안은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이었다.

그 외에도 헌혈 공가 및 반가, 외출 허용과 지역 상품권 제공, 표창 등이 큰 차이 없이 뒤를 이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헌혈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감면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규모는 미미하다. 또한 지역사회 상품권 지급도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제 국가와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헌혈자의 기대를 반영해, 전국의 공공시설에서 국가 유공자 수준의 실질적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 헌혈 교육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만, 보다 실효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학교와 직장에서도 정기적으로 헌혈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시간 배정과 의무화가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다.

다가오는 6월 14일, 우리 혈액원은 세계 헌혈자의 날을 맞아 헌혈 유공자 표창과 대한적십자사 홍보대사 강연석 시인 강연, 지비츠 추가 증정, 연극 관람 및 광주 패밀리랜드 이용 이벤트 등 헌혈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혈을 받은 한 아이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한다. “아이가 수술과 항암을 하면서 받게 된 혈액은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의 귀중한 시간과 돈, 그리고 희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생명을 이어주는 영웅들, 바로 광주·전남 20만여 명의 헌혈자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직도 망설이는 분들 에게도 말씀드리고 싶다.

당신의 따뜻한 동참이 또 다른 생명을 이어주는 힘이 될 수 있다고.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 원장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복고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